“제설부터 난방비 지원까지”… 전남광주, 겨울철 안전망 강화

제설 취약 199개 노선 중점관리
한파쉼터 9184곳·대피소 33곳 가동
취약계층 보호 16개 복지사업 시행
경로당 난방비·돌봄 서비스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19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 맞춤형 복지 대책을 병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와 고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제설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전체 제설 대상 도로 9090㎞ 가운데 고갯길이나 교량 등 교통 두절 우려가 있는 199개 노선(472.8㎞)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현장 대응을 위한 자원과 매뉴얼도 정비했다. 시는 제설제 1만8791t과 제설 장비 2237대, 인력 3462명을 확보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한다. 강설 예보 시 눈이 내리기 2시간 전 제설제를 미리 살포해 도로 결빙을 차단하고, 강설 중에는 3시간 간격으로 반복 제설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제설 사각지대 해소와 물류 흐름 유지에도 주력한다.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에는 민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인다.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산업단지 주변 도로는 화물·물류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출근 시간 전인 오전 3~4시 사이에 집중 제설을 실시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보호 대책도 본격화된다. 시는 한파 쉼터 9184곳과 한파 응급대피소 33곳을 지정·운영한다. 취약노인 7만8000명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 4934명에게 추가 활동비와 방한용품, 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재난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복지 사업도 펼쳐진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총 1977억원을 투입해 16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1만711곳에 5개월간 월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상시 확인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27개 시·구·군이 운영하는 먹거리 지원 공간 ‘그냥드림’ 224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1만1618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1만4500가구에 노후 난방 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시는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다음 달 1일 시·구·군, 도로 건설부서, 소방·경찰, 기상청 등 37개 부서 50명이 참여하는 ‘대설·한파 재난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설·한파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올겨울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부정거래를 예방하고 가맹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확인된 의심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항시

불빛축제서 AI 미래비전 선봬

포항시는 지난 21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특별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Steel & AI 수도 포항’ 비전을 알렸다. 시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강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영상에 담았다.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이 포항의 산업 역사와 앞으로의 산업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포항시는 영상 상영을 통해 철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포항이 AI를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방향을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사업 자문위 출범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알천홀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사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자문위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문화유산·건축 전문가와 전·현직 지방의원,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 등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사업 홍보와 시민 소통,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거제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개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22일 경남 거제에서 열렸다. 장목면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 안석봉 거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앙상블은 식전 공연에서 현악 4중주로 평소 클래식을 즐겼던 고인을 기렸다. 이어 국민의례와 묵념, 추모사가 진행됐고 유족 인사말 영상과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소프라노 이현서와 테너 김준연의 추모 공연 뒤에는 참석자들이 헌화했다. 기록전시관에는 이날 시민과 관람객이 자유롭게 헌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거제(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통합 추진 본격화

내년 말까지 국내선 통합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말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인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지역 핵심 항공 현안을 반영해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확립하고 남해안권 항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고시되는 일정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을 내년 말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최대 숙원인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의 일환이자,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는 핵심 절차다.

시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장기 폐쇄 상태에 놓인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2027년 말 재개항할 예정인 만큼, 이 시기에 발맞춰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차질 없이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시는 재개항 전까지 안전성 저하가 확인된 무안공항의 활주로와 각종 운항시설물에 대한 보수·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부권 거점인 여수공항의 안전성과 운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경북도, 전기차 충돌안전 기술센터 준공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시험시설 구축

경북도는 지난 20일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전기차 충돌안전부품 기술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충돌 후 배터리 파손·화재 위험과 차체 안전성을 시험하고 자동차부품업체의 미래차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센터는 2023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건립됐다. 센터 건립과 기업 기술고도화에 2027년까지 총 222억 원이 투입된다.

xEV 보호차체는 배터리 케이스와 하부 프레임 등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차체 하부구조물이다. 센터는 가상설계 해석 시스템, 3차원 역설계 시스템, 레이저 용접 장비 등 10종을 갖췄다.

기업은 충격 가속 슬레드 장비를 활용해 보호차체 충돌·변형을 모사하고 관련 규정에 대응할 수 있다.

센터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대응해 전기차 하부 직접 충돌 검증 시스템과 충돌 후 배터리 파손·화재를 평가하는 지연화재 안전성 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북도는 내연차 중심의 차체·섀시 부품기업이 xEV 보호차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간 협력과 충돌안전 대응을 지원한다.

준공식에서는 현대자동차 실차로 충돌시험 장비를 가동해 배터리와 시트 등 부품의 변형 상태와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조지연 국회의원,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현지시간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청에서 커크 왓슨(Kirk Watson) 오스틴시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공식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광명시, 美 오스틴시와 교류협력 확대

자매결연 25주년 맞아 협력 논의
문화·교육·경제 분야 교류 강화

광명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

시는 현지시간 20일 오스틴시청에서 커크 왓슨(Kirk Watson) 오스틴시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지난 25년간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스틴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미국을 방문한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과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기존 친선교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교류와 공연·축제 협력,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논의했다. 교육·청년·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스틴시의 문화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

파주시, 장단콩축제 30주년 맞아 행사 풍성

27~29일 임진각광장서 개최

파주시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30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임진각광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파주시 시 승격 30주년과 축제 30회가 겹치는 만큼 장단콩 직거래와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600m 가래떡 나눔 등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콩으로 채우는 건강, 장단콩으로 잇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총 342개 부스가 운영된다. 농특산물·가공품 판매 105개, 전문음식 104개, 시정·체험·운영 133개 부스로 구성된다. 축제 공간은 ‘알콩·달콩·놀콩·살콩’ 등 4개 테마로 나눠, 장단콩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축제 30회 기념 영상이 운영되며,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향토음식 판매점도 마련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파주 농특산물 판매장과 재래장터도 열린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파주장단콩 서리태 신품종 ‘평화흑청’ 선포식이 진행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